



# 일자리가 집값 흔든다 신고가 행진, 마피 실종

**직주근접 내집 기준 부상**  
반세권 동탄·수지 집값 급등  
광주 첨단3지구 웃돈 전환  
평택 미분양 감소세 뚜렷  
거제·천안 산업도시 효과

일자리가 주거지도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마니가 경기 화성시 동탄 집값을 상급지 수준까지 끌어 올린데 이어 광주 광역시에서 반도체공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종적을 감췄다. 일자리와 '직주근접'이 내집 마련 기준이 됐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강력한 주거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주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반세권(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수지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22일 기준으로 각각 11.38%, 9.45% 급등했다. 용인 기흥과 수원시 영통 역시 상승률이 각각 6.21%, 6.15%에 달했다. 전국 평균치(1.55%)는 물론 수도권(3.01%)과 서울(4.82%)을 크게 웃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동탄의 경우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GTX-A 동탄역과 연결된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달 22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평대인 전용 65㎡도 20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20억원 대로 올라섰다. 호가는 더 오르면서 20억원 이하 매물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부터 반영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 북구 첨단3

지구의 경우 주요 단지에서 '마피'가 사라지고 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대규모 산업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인구 유입과 고용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경기 평택시 역시 공급 물량 부담에 쌓였던 미분양이 줄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평택 미분양 물량은 33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 유입과 산업 생태계 확장이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권에서는 조선업 중심 도시인 경남 거제가 업황 회복과 함께 고용 지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중심으로 수주와 생산이 확대되면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거제 취업자 수는 2023년 5월 12만4500명에서 2025년 6월 13만4000명으로 약 95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도 62.7%에서 65.3%로 상승했다. 산업 회복이 지역 소비와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품은 직주근접 도시는 일자리 창출이 인구 유입을 이끌고, 늘어난 인구가 교통, 상업 등 주거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전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바탕으로 주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 천안 일반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탄탄한 배후 수요에 분양 성적도 좋다. 지난 5월 천안시 업성동에 공급된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블록'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6.27대 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서 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분쟁서 최종 승소

**대법원, 명일품 상고 기각**  
등록무효 소송 원심 확정  
원천기술 정당성 법적 인정  
"기술우위·지재권 보호 강화"

LX하우시스가 명일품 주식회사와의 단열재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이에 따라 LX하우시스의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품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X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이 LX하우시스의 승소로 끝났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지난 2022년 3월 명일품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명일품은 같은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을 통해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중합 기술 및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명일품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

단열재를 양산화한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왔다.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을 확보했음은 물론 동시에 화재에 강한 준불연 성능까지 확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자재 업계에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LX하우시스 PF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물론 업계에서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 홈플러스 회생기한 임박... 興·노조 "기간 연장해야"

민주당 을지로위·TF, 법원 앞 회견  
"긴급운영자금 투입 땀 정상화 물꼬"

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진보 정당과 노동조합은 회생 기간의 전향적 연장과 실질적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과 광장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 홈플러스사태해결TF(태스크포스)는 1일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해 영업 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회생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유동수 MBK 홈플러스사태해결TF 위원장, 김남근·박희승 민주당 의원, 정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전단체파해지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 절차 기간의 전향적 연장 ▲무분별한 점포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왼쪽에서 5번째), 유동수 MBK홈플러스사태해결TF 위원장(왼쪽에서 4번째) 등이 홈플러스 회생기한 연장 및 회생법원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매각 및 폐쇄 승인 보류 ▲고용 보장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하림그룹 산하 NS쇼핑에 인수가 완료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6월초에 NS쇼핑의 상품대금 지급 보증으로 상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서 불과 2주 만에 전체 매출이 회생 절차 이전 수준의 약 50%까지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형마트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투입을 통해 상품 매입,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의 영업 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

면 회생과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가 마련하겠다고 한) 3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 중에 100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메리츠 측에 따르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보증만 선다면 1000억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며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지고 여론이 모아진다면 나머지 1000억 원도 마련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 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조... 친환경차·소비재도 선전

» 1면 '사상 첫 1000억 달러...'서 계속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6월 수출이 1000억 불을 달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라며 "최근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출 관련된 IT제품기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차 줄고 '친환경차' 날았다... 소비재·소재 품목도 고른 선전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가에 힘입어 5.8% 증가한 6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고급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차(+38.6%, 19억 7000만 달러)와 전기차(+18.1%, 9억 4000만 달러) 등 친환경차가 호실적을 견인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7.8% 감소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내연차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나 친환

경차 수출이 늘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제품들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와 한류 확산에 힘입어 유망 소비재의 약진도 돋보였다. 화장품 수출은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42.5% 증가한 1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은 라면과 조미김 등 가공식품 유행으로 16.8% 증가한 11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美·中 수출 동시 200억달러 돌파... 중동은 전쟁 여파로 부진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 달러 고지를 넘었다.

미국 수출(200억 2000만 달러, +78.6%)은 AI 서버 투자 확대로 반도체(+348%)와 컴퓨터(+561%)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대중국 수출(200억 3000

만 달러, +92.1%) 역시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배 이상 폭증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세안(+86.6%)과 EU(+31.8%) 역시 반도체와 선박 등의 선전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무역흑자 1383억달러... 정부 "세계 수출 5강 진입 충분히 가능"

6월의 기록적인 폭발력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1~6월) 전체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상반기 실적표다. 특히 상반기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9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2025년) 연간 총 수출 실적인 1734억 달러를 단 6개월 만에 가볍히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는 하반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세계 수출 5대 강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포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